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0월 19일(일) 제1560호

지금 여기, 사도행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행28:31



지금 여기, 사도행전!

40주년 축제 캠페인, 마라톤대회, 특별순예배 이어져
10월 21~23일 서빙고온누리교회서 '온누리사역축제(OMC)'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사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40주년 축제 캠페인, 특별순예배, 마라톤대회, 온누리사역축제(OMC)가 그것이다.

40주년 축제 캠페인에서는 '은혜의 40주년', '작은 시작', '부흥의 기억 돌아보기' 등을 주제로 7주 동안 추억의 사진전, 파송 선교사 영상 매시지, 선교사를 위한 전교인 기도, 온누리 라이브 팟캐스트, 40주년 마라톤대회 등을 한다.

'온누리 40주년 기념 라이브 팟캐스트'도 지난 10월 16일(목) 기독교 O.T.T '풍당'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다. 이재훈 위임목사, 조호영 목사, 이용만 장로, 이인용

장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CCM가수 여니엘과 배우 권오중이 진행을 맡았다.

온누리 40주년 마라톤대회는 현장마라톤과 주간 인증 챌린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마라톤은 어제(10월 18일) 오후 4시 이촌 한강공원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성도 250여 명이 5km와 10km 코스를 나눠 달렸다.

주간 인증 챌린지는 10월 23일(목)까지 한다. 걷기 또는 러닝으로 누적 40km를 완주하는 방식이다. 러닝 앱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인증해서 40주년 기념 웹페이지(40th.onnuri-curch.com)에 업로드하면 된다.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기념 쿠폰을 증정한다.

특별순예배는 10월 셋째 주까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형으로' 등을 주제로 드린다.

온누리사역축제(OMC)는 10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21일(화) '교회, 복음으로 서다!', 22일(수)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23일(목)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주제 강의, 패널토의, 선택식 강의, 저녁 집회 등을 개최한다. 날짜별 강사 및 강의 주제, 선택식 강의 목록은 상단 QR코드로 확인하면 된다.

OMC 문의: 02-3215-3234(3122, 35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19일까지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현금

2025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현금을 10월 19일(일)까지 봉헌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순과 개인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각 캠퍼스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

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10월 19일(일)까지 이메일(서빙고: 25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 간사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설문조사

10월 20일까지 전 성도 대상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에서 '2025 미래&가족 축제(OFFC, Onnuri Future&Fmailly Celebration)'를 준비하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0월 20일(월)까지 QR코드로 접속해서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긴급 중보기도 제목

중국 정부는 최근(10월 10일경) 중국 가정 교회 리더인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한 베이징 시온교회 리더 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도시 가정 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조직적 단속입니다. 에즈라 진 목사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 도시 가정 교회를 세운 리더로, 2007년에 세운 베이징 시온교회가 2018년 정부에 의해 폐쇄된 이후 전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대 규모의 도시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 중 하나인 시온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40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로 확장되었는데, 사역을 하던 중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北海)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최근 중국 정부가 가정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었는데, 이번 에즈라 진 목사의 체포는 더 조직적이고 계획된 탄압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목도해 왔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일입니다. 이번 중국 교회가 다시 겪는 고난이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구금을 예견했던 에즈라 진 목사가 늘 해 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기도 제목은 현재 미국에 있는 에즈라 진 목사의 가족들이 전해 온 기도 제목입니다. 에즈라 진 목사는 이러한 일을 예견하고, 가족이 불모가 되지 않게 하려고 몇 년 전 가족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에즈라 진 목사의 체포에 대해 미국 국무성도 중국 정부에 석방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에즈라 진 목사는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에도 큰 힘을 쏟았던 분으로, 한국로잔위원회는 모든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훈 목사

기도제목

- 저희 아버님과 감옥에 계신 목사님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건강과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교도소 독방에 개별적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보거나 대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몇몇 분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셔서 저희가 매우 걱정됩니다.
-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석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정부는 이미 구금영장을 발부한 상태인데, 이는 대개 기소가 확정되고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적인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므로, 변호사들에게도 보호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변호사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 교도소 안에서 목사님들의 보호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걱정으로 병들어가고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지원 활동에 지혜가 있기를, 우리의 노력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망원경의 관점입니다.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실제보다 크게 보는 기능을 가져다줍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불평은 현미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작은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감사는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되게 섬기는 마음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수록 충성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충만한 '갈렘'

구약 역사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갈렘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주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부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정복하고, 남부로 내려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메롬 물가 전투, 혹은 하솔 전투라고 불리는 북부 연합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가 맡게 된 영역은 알아서 정복하게끔 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 부족의 숫자대로, 그 인원대로 땅을 배분하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인원에 따라서 배분하라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빠졌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므로 또 빠졌습니다. 나머지 지파만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족장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때 갈렘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민족의 가장 절대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고, 메시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의 리더가 바로 갈렘이었습니다.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제비 뽑는 일에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자신들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도록 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원하는 이 기심에서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돈으로 구입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나 사람들이 살고 있던, 크고 강한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렘이 이 시점에 요청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충성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8-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충성된 믿음입니다. 갈렘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10~11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과 감사가 갈렘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감사와 충성이 가득한 갈렘에게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7-8절). 갈렘이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장면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열두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러면 열두 명의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 땅을 가서 살펴보고 오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두

감사와 충성

여호수아 14:6~14

“하나님은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갈렘과 같이 감사와 충성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명을 정탐꾼으로 보내 그 땅을 살펴보라고 하신 단어가 군사용어가 아닙니다. '살펴본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지혜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같은 곳에서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지혜를 통해서 살펴보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고 맛보는 의미의 정탐이지, 군사적 의미의 정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그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소망을 품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미리 보고 백성들에게 잘 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펴본 열 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불신앙에 백성들이 휩쓸렸습니다. 그때 갈렘이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렘입니다. 후에 여호수아도 함세했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백성들이 가장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나서서 말한 사람은 갈렘입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땅입니다.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 땅에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갈렘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열 명의 불신앙은 자신들의 힘과 거인들을 비교했지만, 갈렘과 여호수아는 그 거인들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충성은 불신앙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절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불신앙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과학을 더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득세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위치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둘째, 갈렘은 자신의 위치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죽고 차세대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렘은 역사에 부각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수십

년 간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대에서 가려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은 자신의 위치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동역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과 임무가 중요했습니다. 사명보다 직분이 중요한 교회는 결국 싸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교회는 결국 분열과 다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자청하는 믿음

셋째, 갈렘을 통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자청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지파에게 맡겨달라고 한 것은 가장 위험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렘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헌신을 자청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충성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갈렘이 45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인내했고, 85세가 되었어도 감사와 충성이 가득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힘은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대하 16:9).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힘 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갈렘에게 맡깁니다. 갈렘은 그 산지를 훌륭하게 정복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의 중심부를 도피성으로 제공합니다. 성읍 자체를 레위 자손들에게 제공합니다. 정착 자신들은 변두리 산지와 촌락에 거주합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얻은 기업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렘처럼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갈렘과 같이 감사와 충성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감사와 충성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낙태약은 타이레놀만큼 안전하지 않나요?

대화 중 누군가 “낙태약은 타이레놀만큼 안전하지 않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먼저 낙태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낙태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단계 약물 요법의 별칭이다. 오늘날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임신 중절 방법으로, 임신 70일(10주)까지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데 쓰인다.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자궁이 아기를 자라도록 돕는 호르몬을 차단한다. 이 호르몬이 차단되면 아기는 죽는다.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아기와 임신 조직을 여성의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 과정은 ‘약물(화학) 낙태’라 불리며, 오늘날 전체 낙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방법을 종종 일상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취급한다. 일부는 심지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거대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조차 “타이레놀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안전한 비교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페프리스톤은 두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명을 끝낸다. 타이레놀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페프리스톤의 목적은 임신이 살아 있는 아기의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끝내는 것이다. 즉, 이 약물이 성공하면 누군가는 항상 죽는다. 이는 ‘안전하다’는 말과 가장 거리가 멀다. 낙태 논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태아는 무엇인가?”다. 거의 모든 낙태를 옹호하는 논증은 이 질문을 회피하거나 태아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단지 세포 덩어리나 조직 조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 무고한 인간이라면,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잘못이다. 낙태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다.

둘째, 산모에게도 낙태약은 타이레놀만큼 안전하지 않다. “낙태약이 타이레놀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은 두 약으로 인해 입원한 전체 사례 수를 단순히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왜곡된 방식이다.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사람이 낙태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미국인 600만 명 이상이 매주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주성분)을 복용한다. 반면 매년 약 50만 명의 여성만이 낙태약을 이용한 화학적 낙태를 시도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비교는 ‘전체 수치’가 아니라 ‘사용자 1인당 비율’로 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낙태약이 타이레놀보다 훨씬 위험하다. FDA의 공식 라벨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여성 중 최소 25명 중 1명은 응급실을 찾는다. 게다가 이는 낙태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수치이다. 반대로 타이레놀 관련 합병증은 대부분 과다 복용 등 ‘잘못된 사용’ 때문이다. 낙태약 복용 이후 여성들이 응급 치료를 받는 흔한 이유는 과다 출혈, 극심한 통증,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이다. 낙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셋째, 많은 여성이 경험할 충격에 대비하지 못한다. 낙태약을 구매할 때, 특히 온라인에서 의료 감독 없이 구매하는 경우, 많은 여성은 자신이 보게 될 광경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10주 차 태아는 단순한 조직 덩어리가 아니다. 포도알 크기로 팔, 다리, 눈이 뚜렷하다. 약물 낙태를 경험한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아무도 내가 전체 양막 주머니를 그대로 배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아기를 손에 들고 그의 눈과 손가락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혈괴와 많은 혈액만 볼 거라고 했다.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낙태의 비극은 여성이 아기를 실제로 보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태아를 보든, 보지 않든 낙태는 고요한 인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생명을 없애는 행위다. 이런 경험은 예상치 못한 슬픔과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낙태약은 결코 타이레놀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하지 않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두통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생명을 끝내는 약이다.”

“산모에게도 낙태약은 안전하지 않으며, 타이레놀보다 훨씬 위험하다.”

“많은 여성이 낙태 약물 복용 이후 충격적인 경험에 전혀 대비되지 못한다.”

원문: 폴스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한 권의 책

우리의 세계관에 하나님을 플러스!



〈기독교 세계관 플러스〉
신무환 저 | 두란노 | 16,000원

몇 년 전 유재석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에 도전했다. 연예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일이 뭐가 대수일까 싶겠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는 ‘유산술’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흔히 말하는 ‘부캐’(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변신했다.

유재석은 철저하게 유재석을 지웠다. 사람들이 그를 “유재석”이라고 불러도 그는 자신을 “트로트 신인가수 유산술”이라고 소개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를 국민 MC가 아닌 트로트

신인가수로 대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대하듯 말이다. 곧 유재석과 유산술은 별개의 사람이 되었다. 이 예시로 세계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비약이라고 할지 모른다. 예능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재석의 말은 달랐다.

“자아가 너무 힘들다. 나는 유재석인데 자꾸 유산술이라고 하고, 음악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장난스럽게 시작된 세계관이 어느새 그의 자아까지 흔드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세계관’이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세계관은 건강한가?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간이 나왔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 플러스〉다. 이 책의 저자 신무환은 온누리교회 장로이자, 온누리세계관학교(OWA)의 창립 멤버로서 복음적 세계관 강의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복음적 세계관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준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계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물결이 교육, 문화, 사회, 예술, 정치, 가정, 과학 등 모든 영역에 넘실대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자마자 비성경적 세계관의 공기를 쉴 새 없이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배적 가치관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은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자연스레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창조(creation)’, ‘인간의 타락(fall)’,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redemption)’, ‘온전한 회복(recovery)’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서 역사와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 관점입니다.”

저자가 성경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유재석이 세계관으로 인해 느꼈던 자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위협하는 세계관으로 ‘인본주의’를 꼽았다. 특히 ‘세속적 인본주의’,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공격하는지를 설명했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용주의적 교육체계에 큰 영향을 받았습시다. 실용주의의 중요 기준인 ‘현실적 유용성’은 국가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절대적 가

치 기준에 대한 고찰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자는 ‘영역주권’, ‘일반은총’, ‘특별은총’이라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부드럽게 설명한다.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만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인 일반은총은 복음 전파를 위한 보물로 채색된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하여 신자들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은총의 영역과 범위가 넓을수록 이러한 접촉점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반은총의 그라운드를 대단히 넓게 설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아오지 않은 양들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신자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애타는 마음만큼 넓은 일반은총의 영역들을 접촉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책을 덮을 즈음, 이 책이야말로 혼탁한 세상의 세계관에 맞서는 ‘예방주사’라는 생각이 선행해진다. 이 책은 우리 안에 영적 항체를 형성해준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한 생각들을 바로잡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돕는다. 성경적 세계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 책을 기꺼이 추천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발달장애인 1세대 첼리스트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김어령 형제(누리사랑부, 43세)가 'Picture Story & Music'을 주제로 음악회(10월 26일)와 작품 전시회(11월 8일까지)를 개최한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과 예술로 발달장애인의 감동적인 삶의 여정을 엿볼 수 있다.

김어령 형제를 신앙과 사랑으로 키워낸 그의 어머니 송명애 권사를 만났다. 절망의 순간 기도하며 얻은 깨달음부터 오직 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고 달려온 한 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이 주신 날개 달고 훨훨 날아올라라!”

발달장애인 첼리스트이자 화가 김어령과 송명애 권사

“1년만 기도하면 낫겠네!”

김어령 형제는 오래보다 말이 느리게 트였고, 발걸음도 잘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는 송명애 권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었지만, 찾아가는 병원마다 그저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라고만 했다. 견디다 못해 의사에게 사진이라도 찍어보자고 했는데, 뇌종양과 뇌수종 진단을 받았다. 4살 무렵이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송명애 권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어느 권사의 말을 붙잡았다. “1년만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권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무릎을 꿇었다. 1년을 작정하고 아들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아무리 기도해도 별 차도가 없는 아들을 보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기도를 작정했던 1년이 2주 남았을 무렵, 문득 ‘우리 아이가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장애인으로 살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료적인 지원은 물론,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령이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령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어령이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김어령 형제가 여섯 살 되는 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신앙 교육이다. 김어령 형제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둘이 앉아 예배드리고, 나뭇잎의 큐티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생활이었다. 송 권사는 아들에게 늘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아이야”라며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심어주었다. 그 교육 덕분에 이었을까? 김어령 형제는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랐다. 아픈 말을 들어도 신앙으로 세워진 자존감으로 이겨냈다.

“어령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소문난 못된 친구가 뒤에 앉아 어령이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안 가도 괜찮아’라고 말했는데, 스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령이가 자기 방에서 불을 끄고 주기도를 외우며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덕분에 견디기 힘들었을 그 어려움에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아들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림과 음악, 하나님이 주신 두 날개

하나님은 김어령 형제에게 ‘그림과 음악’이라는 두 날개를 달아주셨다. 김어령 형제는 현재 미술 작가와 첼리스트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김어령 형제의 미술 재능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발현됐다. 그의 그림은 순수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김어령 형제가 본 인물, 사물, 자연 등 모든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멋진 그림으로 펼쳐졌다.

송명애 권사는 김어령 형제의 순수한 작품 세계가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랐다. 김어령 형제의 그림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재능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어령 형제의 작품세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았다. 몇 년을 찾아다닌 끝에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김어령 형제의 첫사랑이기도 했던 박성은 선생을 만났다. 그 인연으로 황창배 화백도 만났다. 박성은 선생과 황창배 화백 두 사람의 사랑과 이해, 지도 덕분에 김어령 형제는 2001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관훈미술관에서 개인전 ‘어령이와 함께하는 알콩달콩 이야기전’을 개최했다. 당시 고등학생이, 그것도 발달장애인 작가가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전시회에 다녀갔다.

김어령 형제는 한순간도 그림을 놓지 않았다. 2002년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고등부 대상’, 2003년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성인부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0년 일본에서 열린 ‘Asia ParaArt Tokyo’, 2020년 남산갤러리에서 열린 ‘YTN 아트페스티벌’ 등에도 참가했다.

김어령 형제가 30년 넘게 그린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이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을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다. ‘어령이는 아기씨에서 나왔죠’, ‘환기 미술관’, ‘부활’, ‘첼로를 좋아하시나요?’ 등 15개 작품을 11월 8일(토)까지 감상할 수 있다.

첼리스트의 길은 두 명의 헌신적인 스승 덕분에 열렸다. 사랑챔버에서 만난 정현애 권사와 장윤정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정현애 권사는 3년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아무런 대가 없이 김어령 형제에게 첼로 레슨을 해줬다. 장윤정 선생은 무려 10년 동안 무료로 김어령 형제를 지도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김어령 형제가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발달장애인 연주자 1세대로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의 롤모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김어령 형제는 KBS 교향악단, 광명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고,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음악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여러 차례 수상하며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26일(일) 오후 1시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첼리스트 김어령의 스토리텔링 콘서트 어령씨의 지하철 여행’ 음악



▲ 제목: 네 사람

박성은 선생님 부부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인이어서 등에 나비날개가 생겨났고, 선생님을 뺏어간 남편은 로봇가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여자친구와 함께 서 있는 어령이는 선생님 남편보다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첼리스트이자 화가 김어령 형제와 그의 어머니 송명애 권사.

회가 열린다. 이 음악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이인 ‘지하철 사랑’을 긍정적으로 포용한 신선한 시도이다. 지하철에서 흔히 듣는 음악을 신앙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서 연주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지하철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가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지, 네가 행복하면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어령이가 좋아하는 지하철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시선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음악회입니다. 모두 어령이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셔서 행복한 여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송명애 권사의 유일한 바람은 김어령 형제가, 발달장애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송명애 권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배려와 이해,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하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쓰임새가 다른 그릇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장애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그들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전시회: 11월 8일(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을 갤러리
음악회: 10월 26일(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
문의: 02-3215-3263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빛’

영화 ‘킹 오브 킹스’가 들려주는 치유와 성장의 여정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따뜻한 심리학〉 저자)

정을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그려낸 감동적인 이야기다. 특히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짜 모험을 담고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가 아들 월터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포근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걸 단순한 동화 시간이 아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사는 두 개의 ‘나’가 대화하는 것 같다. 어른이 된 지혜로운 ‘나(디킨스)’가 아직 많은 걸 모르는 순수한 ‘나(월터)’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조용히 속삭여 주는 것이다.

두려움과 악함을 마주하는 순간

월터는 아서 왕 같은 멋진 영웅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천천히 깨닫게 된다. 마치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여는 것처럼.

월터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슬프다. 이걸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월터가 자신 안에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악함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 월터는 결국 다시 떠오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게 되며, 마음속 깊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빛과 어둠, 물,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이 영화는 아름다운 상징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시처럼 들려준다.

빛과 어둠은 깨달음과 무지를 나타낸다. 기적과 부활의 장면은 새벽 햇빛처럼 찬란한 빛으로, 십자가의 고통은 깊은 밤의 어둠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고통을 거쳐 빛나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마음의 여정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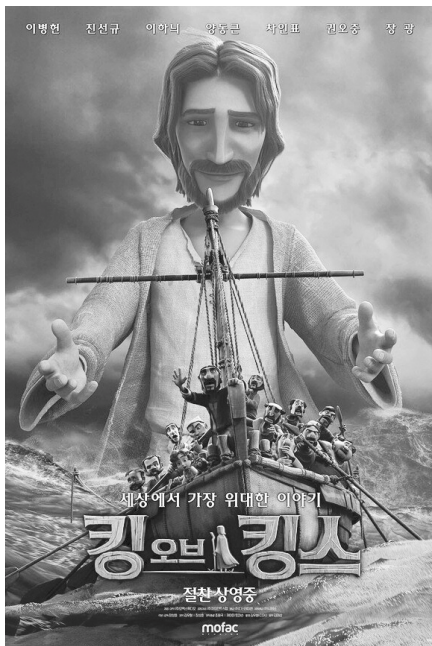
물은 우리의 무의식, 즉 평소엔 느끼지 못하

는 깊은 감정들을 의미한다. 월터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그는 자기 안의 진짜 감정들과 만난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한 인간이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빈 무덤은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과 희망, 즉 마음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다.

내면을 비추는 등장인물



영화 ‘킹 오브 킹스’(왼쪽), 작가 미상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신 예수님〉 1870년대. 이태리 발그리센체, 생 그라트 교회(오른쪽).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두려움은 피할 게 아니라
용기 내서 마주해야 할 것이며,
믿음과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아름다운 통로다.”

등장인물 하나 하나는 우리 내면의 어떤 면을 비추는 거울 같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인물을 넘어,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따뜻한 진실을 보여주는 존재다. 고통과 사랑,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경험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인간의 실수와 회복을 대표한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한다. 이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한다. 반대로 빌라도, 가이바, 헤롯 같은 인물은 권력

욕, 위선, 자기중심적 태도 등 우리가 마음속에서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면들을 보여준다.

디킨스와 월터의 어머니 캐서린은 따뜻한 보호자이자,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만나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마음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현실과 꿈의 경계를 오가는 것처럼

이 영화는 장면마다 애니메이션의 분위기와 색감이 확연히 다르다. 디킨스와 월터가 등장하는 빅토리아 시대 장면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그림체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그 깨달음은 찰스 디킨스의 새로운 글쓰기, 창조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이것은 내가 진짜 나와 만나고, 그 진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다. 마치 한 송이 꽃이 피어나 향기를 퍼뜨리는 것처럼.

월터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야기 방식에 시큰둥했다. “지루한 성경 이야기 말고, 멋진 아서왕 얘기 해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는 점점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월터는 이 여정을 통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느끼고 표현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마치 딱딱한 씨앗이 부드러운 새싹으로 자라는 모습 같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

‘킹 오브 킹스’는 기독교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가 담겨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탄생과 죽음, 절망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 고통과 구원의 과정을 이 영화는 담담하지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모든 상징과 이야기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다. 마치 오래된 신화나 동화처럼 이 영화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진짜 삶의 의미를 조용히 속삭여 준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라는 메시지다.

〈킹 오브 킹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모험이 담겨 있다. 월터의 여정은 바로 우리의 여정이고, 그가 겪는 두려움과 깨달음은 곧 우리가 겪는 인생의 작은 순간들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한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두려움은 피할 게 아니라 용기 내서 마주해야 할 것이며, 믿음과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아름다운 통로라고.

‘킹 오브 킹스’는 그저 보는 영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 영화는 아주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이 되어줄 것이다. 마치 겨울밤 하늘의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해주는 그런 빛 말이다.

* 사족: 글의 제목에 있는 ‘파도’는 월터의 내면적인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고, ‘빛’은 그 고통 후에 찾아오는 치유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부제의 ‘치유와 성장’은 영화의 핵심 메시지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마 19:24)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 당시 제자들조차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로 드셨을까?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귀는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며 인간은 불가능한 일임을 강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

문중에서 작은 문을 가리킨다거나, ‘낙타’ 대신 ‘굵은 밧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과 공관복음 전체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하다. 애초에 과장된 표현을 통해 충격을 주려는 것이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돈 자체가 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다는 데 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은 약해진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마가복음>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기록한다. 단순히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태도가 문제임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결국, 재물은 마음의 우상이 되기 쉽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부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기 무덤을 내어놓은 부자였고, 삭개오는 회개한 이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경고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말씀은 날카로운 도전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재물은 곧 성공과 안정의 상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각자가 의지하는 무언가(돈, 명예, 지식, 자기 능력)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늘귀 앞의 낙타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기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가능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재물은 우리 손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대신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 재물은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씨앗이 된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저의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재물이 저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 속에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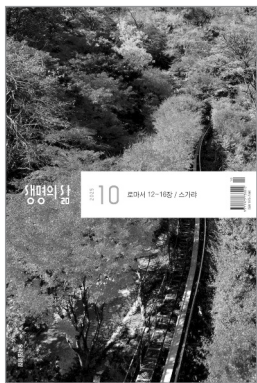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진노의 현실, 소망의 미래

10월 20일~26일까지
<스가라> 7:1~11:17



은 무엇인지 묵상하자.

▶벤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금식을 계속할지 묻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질타하신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금강석같이 완고하게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흠으셨고, 그들이 살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며, 그곳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재판을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금식이 희

묵상포인트 1: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과거의 죄악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기이한 회복

락의 절기로 바뀔 때,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묵상포인트 2: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를 위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약속하신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 나귀를 탄 그 왕은 세상에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삼아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 떼처럼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 정착시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백성을 바르게 이끌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르면, 백성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된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도자의 악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그분께 구하지 않고 헛된 우상

을 찾는 악한 지도자들(목자들, 숫염소들)을 벌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흠으셨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날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들(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할 것이다. 양 떼를 붙잡지 못하니 많은 목자들은 결국 다른 나라에 넘겨질 것이다. 은총(하나님과 그의 관계)과 연합(사람과의 관계)을 깨뜨린 악한 목자에게는 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신앙이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 다해 듣고 힘써 순종하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관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와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간구하자. ▶풍성한 추수를 위해 봄비를 내리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와 공동체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자. ▶지도자의 사명은 목자처럼 자신을 희생해 서라도 공동체 구성원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내게 맡겨 주신 양 떼를 성심껏 보살피며 섬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의 회복과 저의 건강을 위하여!

2년전 친정아버지가 전도본부에서 주최한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공동체에 속하기를 주저하십니다. 또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 날씨와 건강 문제로 봄 이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동생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간의 오랜 시간 쌓인 상처들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낙심하게 됩니다.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몸의 치유와 다음 걸음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5년 전과 3년 전 입은 외상으로 허리와 상체에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어떤 날은 아예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픕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결혼 4년 차임에도 아이를 갖는 것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제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이슈(Issue) 바로보기!

성경적인 조직과 조직문화 1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다(잠 4:23). 사람은 마음의 크기만큼 산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마음, 즉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알려준다. 하나는 흠먼지, 창조의 은혜를 배신한 죽어야 할 행악자,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 등으로 표현되는 ‘절대 깊이의 정체성’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부활, 영원한 상속자 등으로 표현되는 ‘절대 높이의 정체성’이다. 최하의 정체성에서 최고의 정체성으로 가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모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한국 또는 미국 같은 개별 국가가 아닌, 열방을 유업으로 품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즉, ‘절대 높이의 비전’이 생긴다. 이보다 큰 정체성과 비전을 주는 사람과 신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성경적인 인문사회학적 소양)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6월 14일 <온누리신문> 9면에서 설명했다. 당대 최고 지성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식을 집대성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막스의 <자본론>을 각각 성공하고 실패하

게 만든 차이가 바로 인간 근원에 대한 이해에 있다.

조직의 주춧돌: 정체성과 비전

성경에서의 정체성과 비전은 성막의 구조로부터 알 수 있다. 인류의 타락 이후 번제단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지성소에서 비전이 회복된다. 번제단은 ‘무한한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한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

그래야만 조직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된다. 희생양 삼는 것은 죄책감을 주는 것이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무서운 짐이기 때문이다(롬 6:23). 모든 조직의 정체성은 공동체가 함께 겪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 조직이 겪은 가장 큰 고난과 성취한 가장 큰 영광이 조직원들의 마음에 정체성으로 각인된다. 즉,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동선을 따라가면서 정체성의 깊이와 높이가 형성된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지도자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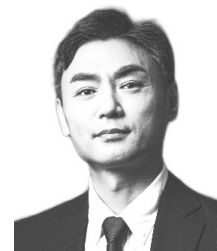
도의 절대 깊이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절대 높이의 부활(영광)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모든 존재를 다 한 감사와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세계관(world view)의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난다. 가정, 교회, 학교, 기업 등 모든 조직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어야 한다. 그 조직에는 희생양 삼는 ‘비판 정신(criticizing spirit)’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신(accepting spirit)’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조직을 만들어 주신 선배들의 고난의 깊이와 성취의 높이를 감사하고 선배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정체성 유지의 핵심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다.

번제단을 지나 지성소에 이르면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를 만난다.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회복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듣고 마음의 소원과 비전이 생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긴다(빌 4:13).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신학자가 되

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며 비전을 실현해 나가면서 시대변화를 주도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때 공동체에 무한한 격려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이러한 권능을 허락하신다.

과거 고난의 깊이와 성취의 높이를 통해 정체성의 깊이와 높이를 언어화하고, 과거 선배 세대에 대한 감사를 기반으로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비전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재구성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결국,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지도자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역사의식을 통한 정체성에 의해 과거에 대한 감사로 첫 번째 마음이 모이고, 비전 공유에 의한 불같은 소원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두 번째 마음이 모인다.



박성진 교수
(OCC공동체,
포스텍교수)

멘토가 멘티에게

멘토는 신호등 그리고 네비게이션

“멘토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5월, 인천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개최한 ‘멘토링 정류장 멘토 토크쇼’는 내게 깊은 여운을 남긴 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멘토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였다.

나는 “교통신호등”이라고 대답했다. 멘토란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호등처럼 조용히 제자리에 서서 진실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통신호등은 정확한 신호를 통해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지, 천천히 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는 온전히 운전자에게 달려 있다.

멘토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 청년들 곁에서 지금은 멈추는 게 안전한지,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도 좋은지를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안내해준다. 그러나 그 결정과 책임은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존중하며 기다려준다. 때로는 무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호등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멘토의 첫 번째 의미이다. <온누리신문>으로부터 ‘멘토가 멘티에게’ 원고를 부탁받으며, 나는 멘토로서의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렸다. 바로 ‘네비게이션’이다. 목적지까지 방향을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처럼, 멘토는 청년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다양한 길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네비게이션은 단 하나의 길만 제시하지 않는다. 가장 빠른 길, 틀게

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때로 길을 잃고 돌아가더라도 곁에서 함께 고민해 주고, 다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그런 멘토가 된다면 청년들의 여정이 훨씬 덜 외롭고 더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다. 교통신호등과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정확한 정보’다. 신호 체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도로 정보가 오

실을 말이다. 말씀 앞에 서서 삶으로 살아낸 신호를 보내도록 날마다 내 신호등의 전선을 점검하고, 내 네비게이션의 지도를 업데이트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할 때 청년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래야 나의 삶이 단순한 조언을 넘어 ‘빛’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시 119:105).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하다. 신호등이 흔들릴 때,

네비게이션이 잠시 꺼질 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것이 멘토인 나도, 멘티인 청년들도 날마다 돌아가야 할 원점이다.



김효수 멘토
(인천 WEB대학청년부)

이트가 없는 길, 막히지 않는 길, 때로는 경치가 아름다운 길까지 제시한다. 그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언제나 운전자 몫이다.

멘토 역시 인생의 정답을 단정 짓기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네비게이션이 말없이 안내만 하듯, 멘토도 강요하지 않는

래되었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잘못된 신호는 사고를 일으키고, 부정확한 안내는 소중한 자원(시간, 기회 등)을 낭비하게 만든다. 멘토 역시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진로를 결정짓기도 하고, 신앙의 여정을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다짐한다. 멘토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

가을, 시를 노래하다

강석우와 함께하는 전도콘서트 657명 참석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이하 가을, 시를 노래하다)가 지난 10월 13일 (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이날 콘서트에는 657명이 참석해 시와 노래로 물든 가을밤을 만끽했다.

전도콘서트 ‘가을, 시를 노래하다’에서는 탤런트 강석우가 해설 및 진행을 했고, 성악가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이 공연했다. 연주는 피아노 이웅, 클래식 기타 이미솔, 챔버 소나레아키 등이 했다. 해외 가곡 ‘Mattinata’, ‘Non ti scordar di me’, ‘Parla piu piano’, ‘Erlkonig’과 한국 가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진달래 꽃’, ‘청산에



강석우와 함께 하는 가곡의 밤 ‘가을, 시를 노래하다’.

살리라’, ‘시간에 기대어’ 등을 선보였다. 강석우 집사가 직접 쓴 시(詩)와 곡이별의 시간, 가을 그리고 겨

울, 4월의 숲속, 정녕 그리운 것은)도 공개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사역본부, 온누리복지재단 후원



차세대사역본부가 지난 10월 16일(목)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와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서 김과 라면 등 생활 식품 1만여 개를 전달했다.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차세대들

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사랑 나눔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연 소장(서울역쪽방상담소)은 “온누리교회 차세대들 덕분에 쪽방 주민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네팔 지부 설립

NGO 더멋진세상이 현지 개발협력사업의 현장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네팔 지부를 설립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6년부터 네팔에서 HIV 감염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네팔 지부 설립으로 한층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더멋진세상 네팔 지부장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더멋진마을’ 비전을 확장하는 총체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이, 변진미 부부 초대전 ‘말씀과 꿈의 여정’

온누리아트비전에서 외부 작가 초대전을 연다. 11월 9일(일)까지 안태이, 변진미 부부 초대전 ‘말씀과 꿈의 여정’을 개최한다.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8절’, ‘Text 05’, ‘푸른 풀밭’, ‘동행’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문의: 010-2321-6494

이혼자행복학교(DRS) 44기 참가자 모집

이혼자행복학교(DRS) 4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이혼, 별거, 소송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타 교회 성도도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25일(토)까지 문의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교재비 포함, 자녀 돌봄 4만 원 추가).

문의: 010-2539-5665

기독교 선교와 인간의 성(性)

제8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 개최

제8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이 지난 10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기독교 선교와 인간의 성(性)’ (Christian Mission and Human Sexuality: Encouraging Accountability to Love God and All People)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목회자 및 선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은 온

누리교회와 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GMLF)이 선교의 중요 주제들을 가지고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제8회 포럼에서는 ‘젠더’ 이슈를 핵심 주제로 다루며, 한국 교회에 새로운 사역적 도전을 제시했다. 법적, 사회학적,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젠더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했고,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되 동성애자들을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품는 사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의: 02-3215-3244

CGN, ‘THE NEW 하늘빛향기’ 방영

10월 20일 CGN TV, 기독교 OTT ‘풍당’, 21일 유튜브

CGN이 신규 간증 프로그램 ‘THE NEW 하늘빛향기’를 10월 20일(월) 오전 10시 20분 CGN TV 채널에서 첫 방송한다. 1편은 20일 자정 기독교 OTT ‘풍당’, 21일(화) 오전 9시 CGN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THE NEW 하늘빛향기’는 CGN의 대표 간증 토크쇼 ‘하늘빛향기’

의 명맥을 잇는 콘텐츠다. ‘CGN 20주년, 다시 선교 미디어의 본질(本質)에 집중합니다’를 주제로 단행된 CGN 가을 개편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김재원 장로(前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첫 회 게스트는 방송인 이정민(前 KBS 아나운서)이다.

/ 홍하영 기자

풍당미디어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

10월 20일 순복음대구교회에서 개최

교회 미디어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2025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원데이 클래스’가 10월 20일(월) 순복음대구교회에서 열린다. 기독교 OTT ‘풍당’ 활용법부터 AI 활용 영상 제작, 라이브 영상 자막 및 조명 등 교회 미디어 실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교회 자

막과 조명 강의는 이론과 실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일반 참가자 5만 원, 풍당 네트워크 교회 및 단체는 3인 이상 등록하면 3만 원(1인당)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홈페이지(fondantmc.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3275-9372

러브소나타 시가 참가자 교육 실시

일정 및 봉사 안내, 중보기도, 팀별 모임

러브소나타 시가 참가자 교육이 지난 10월 16일(목)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있었다. 박종길 목사 설교, 하마오카 마사토시 목사 인사, 황상윤 장로 대표기도, 참가자 일정 안내, 중보기도, 팀별 모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 (눅 2:5-8)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러브소나타 시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러브소나타 시가는 오는 10월 29일(수)과 30일(목) 일본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세 겹줄, 삼포요시의 인생(하나님과 이웃과 조화)’을 주제로 막이 오른다. 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2-570-7415



시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10월 19일(일) 시가현과일본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10월 20일(월) 시가러브소나타에 많은 영혼이 참여하도록 상황과 환경의 문이 열리길
10월 21일(화) 러브소나타 집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길
10월 22일(수)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통역 목사님이 한 영으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10월 23일(목) 러브소나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길
10월 24일(금) 모든 스태프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필요를 잘 채우며 기쁘게 섬기도록
10월 25일(토) 러브소나타를 통해 시가현과일본 전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길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추석감사예배

온누리울타리 봉사자, 자립준비청년 등 20여 명 참석

온누리울타리가 지난 10월 6일(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추석감사예배’를 드렸다. 온누리울타리 리더십 및 봉사자, 자립준비청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하고, 함께 예배드리

며 교제하고 축복했다.

오창화 집사(온누리울타리팀장)는 “외로운 청년들에게 명절에 잠시나마 가정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이 건 강한 성인으로 자립하도록 사랑과 기도로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세웅 팀장(사랑부)

하나 됨을 누리는 그날까지!

어느덧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사랑부 공동체와 함께하게 했다. 자연스럽게 흘러간 세월 속에서 사랑부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문득 사랑부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여전히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금홀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부터 사랑부 코치로 섬기면서 사랑부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방법을 더 깊이 고민했다. 공동체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방법을 떠올렸지만, 곧 여러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떠올랐다. 장애인과 함께 해본 경험의 부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를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과거에 ‘통합’이라는 말로 발달장애인 학생이 신체 나이가 같은 또래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공부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사랑부 첫 교사셨던 나영지 선생님의 짧은 글을 통해 ‘역통합’이라는 단어를 접하며 기존 ‘통합’ 방식에서 생각을 전환해서 사랑부가 주체가

되어 또래 비장애 청년들을 사랑부 예배로 초청하는 예배를 기획했다. 사랑부 지체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비장애인들이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쉽게 예배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랑부에는 SNS 청년부에 속한 교사들이 많았기에 함께 상의한 끝에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지난 8월 24일(일)로 날짜를 정하고, SNS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전 참여 신청을 받았다.

예배당일, 청년들이 사랑부 지체들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장애인, 비장애인, 교사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잊지 않는다. 사랑부 지체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 9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사랑부 캠프에 역대 가장 많은 청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사랑부는 ‘역통합’ 방식의 예배와 교제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지체로 인식되고, 함께 하나 됨을 누리는 그날까지.

엘라이프 참가자 간증



/ 이슬 성도(관악금천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나는 소프라노로 활동하며 온누리복지재단에 소속된 콘솔라토르(위로자) 싱어즈의 단장을 맡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목소리로 병원, 요양원, 장애인단체, 교도소, 군부대,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연속성 발 성장에’라는 치명적인 병을 진단받았다. 성악가, 특히 소프라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병이었다.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사역과 활동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힘겨운 나날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친구의 권유로 엘라이프에 참가했다. 그 친구 역시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었음에도 나를 이끌어 준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돌보며 새 힘을 얻자”는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왔다.

엘라이프 첫날, 여러 검사와 신체 측정을 했다.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결과 수치들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

잡을 용기를 얻었다.

나는 엘라이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매일 주어지는 운동 영상을 따라 했고, 팀원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나누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불평으로 끝나던 상황들이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 갔다.

함께한 팀원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조장님이 세심하게 이끌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이어갔더니 체력이 회복되었고, 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도 점점 좋아졌다.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으며, 무너졌던 몸무게와 건강 지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좋은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품고, 지금도 꾸준히 발성 연습을 하고 있다.

엘라이프는 나에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엘라이프 관계자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2025 하비스트(HARVEST) ‘Renewal’ 봉사자 간증



/ 김효중 자매(Point5)

이주민 선교, 가까운 사명

신앙의 길을 걸으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쓰임이 있을지’에 대한 목상이 깊어질 때, 하비스트(Harvest) 이주민 집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강한 끌림의 마음으로 주저 없이 신청했다. 내가 봉사한 영역은 디자인팀이었다. 예배 자막과 다양한 안내 PPT를 만들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줬다. 처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싶었는데, 막상 집회 현장에서 내가 참가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작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었다.

하비스트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주민들과 함께 웃으며 쫓았지만 깊게 삶을 나눌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Mini Nation’s Tour’ 였다. 이주민들의 국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부스가 마련되었다. 이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전통 의복들과 문화를 체험했고, 신기한 간식도 맛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각 나라의 상황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낮과 밤으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주민들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땅에서 사는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음번 하비스트는 더 많은 청년과 동역자들, 이웃들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내진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하는 장면이 집회 내내 떠올랐다. 단 한 사람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여겼다.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한 부르심의 자리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순종’임을 깨달았다. 나도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었던 것을 떠올리며 이주민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사명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자로서 이 질문을 늘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지금,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은 늘 준비되는가?”

2025 하비스트(HARVEST) ‘Renewal’ 참가자 간증



/ 썸날 판디 자매(캄보디아 유학생)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나는 캄보디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개척 목회를 하던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좋은나무국제학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 유학의 길로 인도하셨다.

초기에는 모든 게 낯설고 고독했다. 의지할 곳 없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자 친구가 되어 주셨다. 5년 유학 생활은 광야 같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신앙 여정이 늘 평탄하지는 않았다. 산 넘어 산처럼 시련이 이어졌고, 사탄이 내 마음에 의심을 심었다.

그러다 참석한 2025 하비스트 수련회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돈을 좇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고, 화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

이 새기게 하셨다. 만물이 창조 목적대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듯이, 나 역시 하나님이 빚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

수련회 마지막 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너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까지 사랑했다. 네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앞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죽고 싶던 마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은혜 앞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간을 통해 세 가지를 결단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 ‘정직과 사랑으로 섬기는 건축회사’를 기도로 이루어가겠다.

앞으로 길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 것이다.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일 것이다.

장로칼럼

기독교 교육 모범 보이는 ‘이대부초’



강기홍 장로
(서조B공동체)

‘온누리교육선교 학교’에서 이화여 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이하 이대부초) 탐방을 다녀왔다. 이대부초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고 귀한 학교다. 탐방하면서 이대부초 여

기저기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창의적으로 정리 정돈된 교실과 복도, 교장실 위치 등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를 통해 이대부초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이대부초는 ‘작은 자를 섬기는 학교’다. 이대부초는 1886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고, 평양에서 오신 이숙례 교수의 헌신으로 1955년 100명의 입학생을 받음으로 개교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모든 어린이는 존중받아야 하며, 비교하거나 줄 세우지 않아야 한다.”

이 문장이 이대부초의 교육철학이다. 이 문장만으로 이대부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가치 위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이 가치관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대부초 곳곳을 함께 다니며 안내하고 설명해주신 교감 선생님은 참으로 진지하고 겸손하신 분이셨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매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선생님들과 학생들

이 함께 아웃리치를 떠난다는 점이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현지 아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대부초의 기독교 교육은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저학년 학생을 배려한 ‘공간을 통해 관계를 만드는 학교’는 창의성을, 일본 에いと소학교, 캄보디아 이화소령학교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성을, 예배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물 중심, 가치관 중심, 생활 적응 중심 과정에서는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체계들은 교육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통로’라는 이대부초의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해요’와 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준비되어 있었다. 기독교 교육 이념이 현실에 녹아들도록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대부초에 입학하는 자녀의 약 20%만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한다. ‘그럼 왜 불신자들은 이대부초를 보내고자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교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내 사라졌다. 헌신한 교사, 훌륭한 교육과정,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교육 받은 선배와 친구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꼭 보내고 싶다’는 인상을 크게 받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의 대안학교와 국공립학교들이 이대부초의 교육철학을 답습하고, 교사들이 실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귀한 학교를 탐방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권사칼럼

‘무릎선교기도학교’로 초대



조혜숙 권사
(양재 무릎선교기도 학교 팀장)

나는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1992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비로소 영적 시아가 열리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다. 800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일본, 그 땅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다.

일본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태국으로 이어졌다. 남편이 태국 대사관 발령을 받게 되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거리 곳곳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전 국민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의 영혼들을 향한 공허한 마음을 품었다. 그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참 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때부터 나는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했다.

다음에 정착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삶은 또 다른 충격과 각성을 주었다. 한때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는 사라지고, 웅장했던 교회들이 박물관이나 펍(Pub)으로 바뀌어 버린 유럽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의 나라가 이제 타락의 길로 앞장서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부부는 18년 전 타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온누리교회에 왔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도의 자리를 찾던 내가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소개받았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국내에 잠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다. 선교사님이 섬기는 나라의 상황, 사역 이야기, 그리고 귀한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 선교지의 영적 회복과 선교사님의 개인적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중보기도는 뜨거운 용광로 같다. 많은 선교사님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고백하실 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올해 초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시던 서혜경 선교사님이 갑작스레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선교지에서는 늘 예기치 못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해 주시기를 청한다.

故 하용조 목사님은 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온누리교회는 그 뜻 위에 지난 40년 동안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로 달려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온 온누리교회의 지난 40년처럼,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가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선교에 목숨 건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못 되더라도,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는 꼭 되기를 바란다. 기도의 무릎으로 열방을 밟으며, 땅끝까지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 나갈 성도님들을 무릎선교기도학교로 초대한다.

신앙에세이



하청훈 목사
(수원 차세대)

수원온누리교회 초 등부 교역자와 교사, 자녀 21명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 여정이 내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세대의 인원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일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었기에 이번 아웃리치 여정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첫 번째 일정은 베트남 선교사님이 섬기는 구찌 고아원 방문이었다. 한국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캠프를 열었고,

키즈벤처 찬양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함께 부르며 울동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교사들과 아이들은 무언극, 태권무,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면서 복음전하는 훈련을 받았고, 선교 현장에서 섬김을 통해 모두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소수민족 기숙사 겸 교회였다. 베트남 사회에서 소수민족은 차별과 배제 속에 살며 공부 기회조차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이 되었다. 그곳을 섬기는 현지 목사님이 기도제목과 비전을 나누주셨다.

“이 땅의 고아들과 소수민족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교육을 통해 세워져 베트남의 새로운 리더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제목과 비전을 들은 우리 팀의 마음

이 뜨거워졌고, 모두 함께 기도했다.

밤에는 야학을 방문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배우기 위해 모여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배움 그 이상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호치민온누리교회도 방문했다. 해외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 땅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에서 깊은 은혜가 흘러넘쳤다. 선교사 센터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분들이 품은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책이나 강의로 배운 선교가 아니라 땀과 눈물 속에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현장이었기에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아웃리치팀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교사로 섬기는 부모님들도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에게 살아 있는 신앙의 본이 되었다.

차세대는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이기도 하다. 이번 베트남 아웃리치에서 만난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했다. 그들의 모습은 한국의 다음세대에게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다시 질문을 해본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신앙이 전해진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아웃리치와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이다.

보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기독교 세계관 플러스

신무환 장로
첫번째 책!



복음적 세계관이 세상 가치관을 이긴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이인용** 법무법인 울촌 가치성장위원장

이철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권혁빈** 미국 씨드교회 담임목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정미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교목 실장

강력 추천!

두란노